

오페라 세계적 권위 '바드 큐레이터상' 받아

(전 광주비엔날레 감독)



美 뉴욕주 바드 칼리지 선정

2008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오페라 세계적 권위 '바드 큐레이터상(Bard Award for Curation Excellence)'을 수상했다.

바드 큐레이터상은 미국 뉴욕 주 바드 칼리지가 시상위원회를 구성, 전 세계 큐레이터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으로 미술계의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다.

오페라 세계적 권위는 전시회로부터 '기준의 전시 문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 오늘날의 전시 만

들이게 역동적 비전을 접목시킨 큐레이터'라는 평을 받았다.

시상위원회는 특히 2008 제7회 광주비엔날레와 2002 독일 카셀 도

큐레이터 하랄드 제만을 비롯, 카트린 다비드(전 카셀도큐멘타 감독), 캐시 휠 브라이시(뉴욕현대미술관 부관장), 바시프 코르튼(전 이스탄불 비엔날레 예술감독) 등이다.

1963년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오페라 세계적 감독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학장을 맡고 있으며 피터 노튼 기획상, 칼리지 아트 어소시에이션의 '프랭크 저 윗 마서' 비평가상을 수상했다.

/오페라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해경 최수남 경위

전남미술대전 서예 입선



여수해경 최수남 경위가 최근 전남미술대전에서 입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2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안전과에 근무하는 최경위가 바쁜 해상안전 활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배운 서예 속씨로 최근 개최된 제45회 전남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종국 왕화지의 서체 '집자성교서(集字聖教序)' 중 한 글귀를 보석제로 쓴 작품을 출품, 입선의 영예를 안았다.

'해관(海觀)'의 호를 가진 최경위는 지난 2007년에도 전남미술대전에서 특선을 비롯, 이 대회에서만 5차례의 입선 경력이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광주일고 '동문 선배와의 만남' 행사



광주제일고등학교(교장 김병재)는 최근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관에서 '동문 선배와의 만남'의 행사를 갖고 선·후배간 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일 광주일고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노력하는 일고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광주제일고 제공)

"슬로시티 경쟁력 충분...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송희용 담양 슬로시티 추진위원장



송희용(51) 담양군 슬로시티(Slow City) 추진위원장은 최근의 관광트렌드가 녹색·생태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전남의 관광산업도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으며, 특히 담양을 비롯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들은 대한민국 명품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나 전남의 관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해안이나 해상국립공원 내 시설구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영암에서 열린 '친환경 녹색관광선언대회'에 참석한 송 위원장은 전남관광산업의 발전전망에 대해 "최근 세계적인 관광주제가 자연 그대로를 보고 즐기는 '녹색관광'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전남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은 다양한 전통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특히 담양 창평과 장흥 유치·장평, 완도 청산, 신안 증도 등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들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학구파 가수 이소온 美 명문대 로스쿨 4곳 합격



가수 이소온(27)이 미국 로스쿨에 합격해 국제변호사에 도전한다고 24일 소속사인 씨·원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전남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선 섬 개발 올림픽, 산사체험 프로그램 등 남도의 자연자원과 농촌을 테마로 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올 여름부터라도 지역민들이 '친절'을 무기 삼아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전남을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속사는 "이소온은 그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로스쿨에서 청강을 하는 등 진학을 준비했다"며 "지난해 입학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수 시험인 LSAT(Law School Admissions Test)

와 에세이, 추천서 등을 준비해 올봄 미국 내 로스쿨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소온의 영어 실력은 이미 수준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토플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고려대학교 4학년 두학기를 전액 장학금으로 마치는 등 가수 활동과 학업을 병행해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7월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소온은 "국제법과 인권법, 저작권법에 관심이 높으며 향후 국제 인권 변호사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연합뉴스

故 김수환 추기경 당신이 그립습니다

종교 사진작가 김경상씨 미공개 사진 82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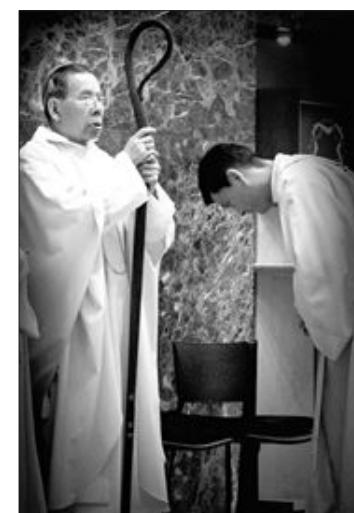


종교 사진작가 김경상씨 미공개 사진 82점 공개
종교 사진을 주로 찍어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경상씨가 지난 2월 선종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을 담은 사진 82점을 26일 대전 아주미술관에서 처음 공개한다.

9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김수환 추기경 추모사진전'에 내놓은 사진들은 모두 흑백 사진으로 대부분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사진에는 장애인 행사에서 활동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김작가는 1989년부터 각종 행사



1996년 7월 장애인 마리톤대회에 서의 故 김수환 추기경.

2003년 10월 사도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故 김수환 추기경.

처 전시작을 결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충렬 감독 '워낭소리'

미 다큐영화제 비전상



이충렬 감독(사진)의 '워낭소리'가 미국에서 열리는 제7회 실버닥스 다큐멘터리 영화제(7th SILVERDOCS Documentary Festival)에서 '시네마틱 비전상'을 수상했다고 배급사 인디스토리가 24일 밝혔다.

'시네마틱 비전상'은 시작적 이야기를 가장 혁신적이고 탁월하게 구성한 장편 다큐에 주는 상으로 상금 2천500달러와 부상 4천 달러가 주어진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실버닥스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미국영화연구소(AFI)와 디스커버리 채널이 후원하며, 올해는 총 122편의 다큐멘터리가 선보였다.

김영삼 동아기술공사 회장

빛고을장학재단에 1천만원



김영삼(주) 동아기술공사 회장이 24일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모두 1천934명에게 장학금 11억2천8백만 원을 지급했다.

인사

◆광주시교육청 인사

◇4급 전보 ◆이문숙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최희룡 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6급 승진 ▲김민성 서부교육청 ▲박시내 서부교육청 ◇7급 승진 ▲박영수 광주체육고 ▲송정훈 동부교육청 ▲이혜련 동부교육청 ◆최상철 서부교육청

고교생이 간경화 아버지에 간 이식

광주 보문고 김대현군



"아버지는 웬찮으신거죠?" 최근 10시간에 걸친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나온 김대현(18·광주 보문고 3)군이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에게 건넨 첫 미소다.

김군은 이번 달 초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하던 아버지(48)에게 간을 이식하려고 수술대에 올랐다. 김군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간경화 판정을 받았고, 병원측은 간 이식 수술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자연계열 전교 5위권의 고3인 김군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대수술을 받았다고 하자,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들의 효심을 이길 수는 없다.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김군은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 간을 이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아버지도 제가 아팠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의 이 같은 효심 덕분인 지 아버지도 수술 후 빠르게 회복중이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수술비와 생계비가 막막한 이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보문고 학생·교직원과 학부모 등은 불과 일주일 만에 1천400만원의 성금과 현찰증 100장을 모아 김군 부모에게 전달했다.

정승호 보문고 교장은 "대현이가 하루빨리 퇴원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학교에 돌아오면 공부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돋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정국체·박태라씨 4남 친대군 양광일(대한복신연맹 부회장)·김순임씨 차녀 금옥양=27일(토) 오후 1시30분 아벌루션웨딩컨벤션 2층(라벤더홀)

▲권준수·오관금씨 장남 원석군 정영동(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팀장)·오광숙씨 장녀 소녕(광주 문산중 교사)=28일(일)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1층 웨딩홀(그랜드룸)

▲복성중 제26회 동창회(회장 이형선) 월례회=26일(금) 오후 7시 상무 삼계탕 062-381-1131.

▲복성중 제28회 동창회(회장 윤종철) 월례회=26일(금) 운암동

치&전복

062-521-0037.

▲광주상고 제23회 학술동창회

(회장 최성기) 기죽야유회=27일(토)

오전 10시 백아산 휴양림, 016-604-2799.

▲복성중 제27회 동창회(회장 윤영천) 월례회=27일(토) 오후 7시

화정동 장어촌, 062-368-3392.

▲동신고 총동창회(회장 손철봉)

정기이사회=29일(월) 오후 7시 프

라도호텔, 010-3647-9977.

향우회

▲칠칠회 모임(회장 김창호)=

26일(금) 오후 6시30분 미송식당, 062-223-6322, 010-6455-6296.

▲재광 영광군 향우회(회장 김영용) 등산회 모임=27일(토) 오전 10시 무등산 중심사 입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